

대한민국 희망은 지방, 그 중심에 자랑스런 경북도민 있다

영천수상자 10면에



21일 영주 선비세상에서 2022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 자랑스런 경북도민(특별상 5, 본상 36) 총 41명 수상

경북도가 지난 21일 영주 선비세상에서 경북의 명예를 더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올해 자랑스런경북도민상 수상자 41명을 선정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 희망 지방시대를 열

어주길 바라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도민의 날’은 신라가 당나라 군사 20만명을 격퇴하며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서기 675년 음력 9월 29일(양력 10월 23일)에서 유래하면서 이날을 도민이 중심으로

결속하자는 의미에서 1996년 경상북도 개도 100주년을 맞이해 도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 왼쪽>는 “도민과 함께 또 다른 새 역사를 만들겠다”며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아래 새 지방시대를 재건하는 한 가운데 우리 도민들이있다”고 강조했다.

[자랑스런 경북도민상 수상자 41명] <사진 위>

코로나극복=▲조성범(62생), 감

동 경북=▲성정희(52생)▲김태우(71생)▲오테필(61생)▲김기성(68생), 포항=▲김미경(68생)▲이영희(59생)▲덕화스님(49생), 경주=▲이인원(70생)▲박정원(65생)▲박이화(71생), 김천=▲이만수(62생)▲박복순(58생), 안동=▲임대식(59생)▲이남형(61생), 구미=▲박재이(64생)▲이한석(58생)▲김명수(51생), 영주=▲권기덕(65생)▲권서영(59생), 영천=▲최일광(50생)▲김광숙(51생), 상주=▲이성희(53생),

문경=▲이경희(59생), 경산=▲이원종(44생)▲김향숙(60생)▲김정숙(68생), 군위=▲윤점환(52생), 의성=▲조용일(61생), 청송=▲이상곤(61생), 영양=▲안재범(42생), 영덕=▲백성동(61생), 청도=▲장용기(54생), 고령=▲이권옥(49생), 성주=▲홍준명(58생), 칠곡=▲최충원(63생)▲권차남(49생), 예천=▲이복선(60생), 봉화=▲강석형(65생), 울진=▲김윤기(60생), 울릉=▲김삼권(53생) 장지수 기자

최기문 영천시장, 민선8기 첫 해외 출장... 농·특산물 판로개척 나선다

하기태 의장, 성영근 농협조합장과 3박5일 베트남 호치민 호치민 ‘한-베트남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참석 차 1일 출국 (영천포도)샤인머스켓 수출 비상... 지난해 대비 올해 반토막

최기문 영천시장이 민선8기 들어 첫 해외 출장에 나선다.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3박 5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22년 한-베트남 비즈니스 수출상담 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은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과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과 농업기술센터 과수한방과 직원 등

10여명과 함께 농산물 특히 영천 포도 수출길을 확대하기 위한 출장이다.

한-베트남 비즈니스 수출상담회는 영남일보가 주최·주관하는 한-베트남 간 수출상담을 위한 전시 및 바이어상담의 국제전시 형식으로 경북도내에서는 영천시를 포함한 11개 시·군 22개 업체가 부스를



최기문 시장 하기태 의장 성영근 조합장

배정 받아 참가한다.

영천 일행은 11월 1일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2일 오전 행사장 내 호치민 윈마트와 함께 영천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하고 3일차에는 현지 바이어 초청 상담과 2차 영천 농특산물 판촉행사가 있다.

또 4일차에는 하루 자유시간을 갖고 이날 현지 농장 등을 견학한 후 야간 귀국길에 올라 5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에 유일하게 지역 농협조합장이 동행한다. 성영근 조합장은 “지금 영천 농산물 수출길이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까지 한창 성장했던 (포도)샤인머스켓 수출길도 사실상 올해 반토막이 날 예정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에 나서야 하는데 이번 해외 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4면

한편, 영천포도(샤인머스켓) 수출 실적을 보면 (단위 톤/천\$) 2019년 125/1264\$, 2020년 187/2395\$, 2021년 185/3236\$로 이 중 베트남이 2019년 1295\$(단위 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영천시와 지역 농협은 올해 영천 샤인머스켓 수출실적은 중국의 생산량 증가와 물류비 증가 등 수출여건 악화로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새 국면... 후보지 변경(임고 매호 일대)

임고면 매호리 북서쪽 일대 10만여㎡(약360만평) 영천시 군부대 이전 유치단 새인물, 김상현 단장 영입

영천시가 유치하려는 대구 통합 군부대 이전이 제2라운드에 들어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시청에서 이번 군부대 이전 유치와 관련해 시민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후보 적합지를 제2타약장으로 지목해 대구시에 제출했었다. 하지만 대구시가 제2타약장에 대한 비용부담 과다로

거부하자 이번에는 임고면 매호리 북서쪽 일대 10만여㎡(약360만평)을 새 후보지로 재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지로 건의된 매호리 북서쪽은 마을 등 민간시설이 적지만 대부분이 산지로 이뤄져있어 이 역시 만만한 적합 후보지는 아니다. 당초 계획대로 군부대 부지를 활

용할 경우 부지 매입비가 절감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 이정섭)의 결정권이 쉽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영천시는 임고면을 선택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는 특정 도시 하나를 선택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시군 모두 국방부에 동시 제출해 심의를 받는다. 사실상 5개 도시 모두 후보지에 대한 불안정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구시는 12월까지 이 5개 도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올해 안에 국방부에 최종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대구시의 건의(안)를 넘겨받아 합참에 넘기고 합참은 또다시 관련 군부대에 경제성과 군사 전략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여러 기관과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어 국방부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달 설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사무관2명, 팀장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군부대 이전 TF팀을 꾸려 운영중이다. 그러나 최근 흥준표 시장과 인맥이 있는 지역 김상현 전홍가플라 대표를 새로운 단장으로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20일 직접 흥준표 대구시장을 찾아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긴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부대 이전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영천시의 역할은 휴면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여단협, 식품 수익판매사업은 불법... 식품위생법 위반·부가세·법인세 포탈 의혹

20년간 매출누락 3억원에 부가세만 3000만원 포탈 의혹 "우리만 하는 것 아냐...경북 여단협 지시에 따른 것" 해명 '무소불위' 영천여단협...자치단체장 선거운동 세력화 우려 전국 여단협도 이같은 불법 물품 판매 만연, 당연한 관행 당국, 전국 여성단체 물품(식품) 수익영업 전수조사 해야

비영리단체인 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단협)가 수익 영업으로 불법 논란을 빚고 있다. 식품(물품) 등을 허가나 신고없이 판매 수익사업을 해오면서 식품위생법 위반과 부가세 및 법인세 포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영천여단협(회장 민순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북 영덕 소재 한 식품회사로부터 원가 6000원짜리 붉은대게간장 3000여개를 매입해 지역 산하 여성단체에 개당 1만원에 판매해 1회 판매에 약 12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매년 2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영천 여단협이 이 수익금으로 "협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협회 관계자의 증언이다. 그는 덧붙여 "많은 행사를 하다보면 돈이 필요하고 또 장학금이나 불우이웃 등 좋은 곳에 사용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특히 여단협의 이같은 물품판매는 비단 영천 뿐만 아니라는 것. 이

관계자는 "경북 23개 시·군 대부분 여단협이 통상 관계처럼 이같은 식품 영업을 해오고 있어 우리는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전국 여단협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지도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영천여단협은 고유번호(일명 사업자등록번호)가 ***-82-***으로 되어있다. 이는 비영리단체로 이같은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통전문판매 영업 허가(신고)를 얻어야 한다.

또 세무소에는 수익사업개시신청을 하고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 의무를 져야하지만 이마저도 영천 여단협은 무시했다. "많은 행사를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수 십 년 동안 이같은 수익금으로 협회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 불법영업을 당연시해 온 이유다.

영천 세무지소 관계자는 20일 본지 취재에 "지역 여성 단체 중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한 단체는 한 곳도 없다"면서 "의도적으로 매출누락이 있었다면 확인해 불법 고지와 함께



가산세 고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995년 창립해 올해로 27년차인 영천여단협은 산하에 17개 여성단체 1만827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경북 전체는 46개 단체 23만명, 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59개 단체 5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방대한 단체로 조사됐다.

영천여단협은 매년 이같은 사업을 한 두 차례씩 십 수년간 자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어림잡아 한 해 평균 1500만원의 순판매(부가금액) 수익을 올렸다고 추계하면 초기 창립 7년을 감하고도 법인세와 가산세를 제외한 20년간 매출누락 3억원에 대한 부가세만 3000만원을 포탈한 셈이다. 영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여단협)으로 범위를 확산하면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성단체협의회 중앙회 한



관계자는 "전국 각 시·군구 여단협에 물품판매 승인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경북 여단협 한 여성 사무 관계자는 "각 지역 여단협이 바자회 형식으로 물품판매를 하는 것으로만 안다. 또 영천여단협의 이같은 식품 수익판매는 알고는 있고, 우리도 23개를 구매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다. 각 지역 여단협 자체적 사항이지 도지부에서 승인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천지역 전·현직 일부 여성단체 리더 다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 영천여단협이 특정 선출직에 너무 밀착해 사실상 선거운동 세력화 염려가 있다"며 우려도 나타냈다. 이들 다수는 "여단협 목소리가 이만저만 높은게 아니다"면서도 밖으로 드러내기는 꺼렸다.

이들은 "영천여단협이 지난 양성평등 행사에서도 지역 보조금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2700원짜리 보리쌀 600여개(162만원)를 지역이 아닌 경주시(생산) 보리쌀을 구매해 선물로 나눠주는 등 우리와 협의한마디 없이 일방적 막무가내 행보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영천여단협 관계자는 "보리쌀은 회장단에서 회의로 결정했는데 모두 우리 고경(영천)에 단가가 맞지 않아 안된다 하더라, 임원들 의견이 영천 보리쌀은 모두 경주농협에 납품된다고 들었다"며 "영천에는 이같은 판매용 보리쌀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영천지역 해당 보리쌀 판매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통상 5~6천원에 판매되지만 행사용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주로 3000원대(이하)로 맞춰주고 있는데 연락은 없었다"고 했다. 또 영천여단협 관계자는 "선거 세력화 우려에 대해서는 "말이 안되며 과거 청도군에서 미나리를 못 팔았을 때 타 지역 사람들이 도왔다. 꼭 우리지역 물품만 팔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없어야 한다"며 해명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많은 취재원들은 "당국이 전국 여단협의 이같은 불법 식품 수익사업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1면 [사설]** 장지수 기자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불법 공사... '봐주기 목인 행정'

시공사, (주)도원이엔시와 일일종합...건설사업관리용역, 경호엔지니어링 현장소장 K씨, 총체적 불법 공사 강행 시인... "18일부터 제대로 지키겠다" 안동시, 불법 민원 신고에 미온적 대처... 민원인 "업자와 잤나?" 성도 민원인, "앞으로 얼마나 규정을 잘 지키나 지켜보겠다" 별리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발주한 (관급)공사현장에 불법이 난무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늑장 대처해 비난을 사고 있다.

안동시는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00 일원에 총 사업비 232억1200만원을 투입해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대지 8만4961㎡에 지상 2층(연면적 2만915㎡)으로 경매장, 저온저장시설,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 공사를 올해 4월 (주)도원이엔시(원청)에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이다(사진)

또 건설사업관리용역(토사 반출 등) 책임감리는 (주)경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지난 5월부터 공사를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원이엔시와 경호엔지니어링은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안전휀스도 없었다. 사토 반출 덤프트럭들이 세륜시설을 피해가며 진출입 하는가 하면 공사장 입구 일반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도 신호수 조차 없어 사고위

험까지 노출돼 있다.

또 공사로 인한 민원 신고용 사업개요 현황판(안내) 조차도 설치하지 않았고, 공사 현장 내 작업 중 10여미터 상부에서 토사가 흘러내려도 태연히 피해 다니는 등 안전모 착용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데다 비산먼지 과다 발생 등 총체적 불법 현장을 신고해도 안동시는 나 몰라라다.

지난 달 30일 안동지역 한 민원인(서동문로 J 모씨)은 안동시에 이같은 민원을 지적했지만 "이달 10일까지 대책조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경제산업국 유통특작과가 담당한다. J씨는 "민원 제기에도 안동시가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또 불법공사와 봐주기 행정이 아니라면 이같은 막무가내 총체적 불법공사는 있을 수 없다"면서 안동시의 미온적 민원대응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 관련 담당(주무관)은 16일자 지역 언론기사와 민원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 "지역 기사도 보지 못했으



▲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공사현장에 세륜시설을 각종 안내판으로 가리고 가동을 하지 않은 채 세륜시설을 피해 진출입하는 덤프트럭 진출입로(오른쪽). (사진=15일 본지 안동 독자, 촬영 10일)



▲ 신호수도 없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공사현장 진출입로 덤프트럭(사진=15일 안동 독자, 촬영 10일)



▲ 비산먼지로 뒤 덮인 공사현장(10일 촬영=안동 본지 독자) 현장 소장 K씨는 "18일부터 신호수와 세륜시설 등을 가동해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철저히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17일 본지 기자에게 전했다.

며 민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담당은 책임감리가 선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공사감독으로 지정돼 있다"고 말하고 "매일 한번씩 현장을 감독한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세륜시설

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사현장(산)이 경사가 높고 세륜시설이 작업현장 가까이 설치되면서 공간이 부족해 덤프트럭 또한 세륜기를 통과할 입장이 못돼 안동시에 사전에 신고 후 작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또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오늘(17일)부터는 덤프트럭이 세륜기를 통과하고 있고, 사실 운반은 무대로 반출하다보니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민원 안내용 현황판 설치하는 휀스(일명 자바라)대문 설치할때 같이 설치하려다보니 뒤늦게 설치하게 됐다"며 해명했다.

이 현장소장은 또 "안동시와 계약관계에 있어 사토 운반은 우리가 통제력이 약하다 보니 신호수 배치는 솔직하게 오늘(17일) 아침에도 못했다 세륜기 관리자와 신호수 배치 협의를 완료해 18일부터는 바로 시행하겠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본지 민원인은 "공사 시작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할 안동시가 민원이 제기되어도 마치 업자와 찝뽕처럼 이같은 미온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제대로 규정을 지키는지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버리고 있다.

장지수 기자

이장 선거로 말썽 빛은 청통면 치일1리...이번엔 불법 포장마차

‘은혜로운 휴양마을’ 운영 장기 방치...영천시, 지침 위반 ‘행복마을’ 사업에는 보조금 불법사용 확인...감사 검토 청통면=현 이장 임명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법정시비 중

올해 2월부터 이장 선거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을 빚어 온 청통면 치일1리(현 이장 황병근)가 선거 후 유증이 치유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불법 포장마차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불법포장마차)

25일 청통면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최대 관광지인 은혜사 입구 주차장에 불법포장마차 등 잡상이 발생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가스통을 사용하는 봉어빵 리어커와 빵튀기 등 일부 불법포장마차가 반발해 철거 집행을 15일째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민원인은 “청통면이 봐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 이장과 한 통속인지는 알수 없지만 민

원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마을 이장의 협조가 미진하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면 관계자는 철거하지 못한 이유로 “현 이장과 마을 일부 주민들에게도 철거행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장은 “입장이 곤란하다”며 미온적 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현 이장이 불법 포장마차와 또 다른 이해관계 의혹을 사고 있다는 이유다.

앞서 치일1리는 올해 2월부터 이장선거를 두고 (청통면)관 개입 의혹이 발생했다. 앞서 면은 두 차례나 이장 임명에 서류 반려와 반려를 거듭하면서 관이 나서서 다시



이장을 직접 선출해 현재의 이장을 임명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면이 직접 마을 총회와 이장 투표를 주관해 적법성 논란이 현재 법적 분쟁화 하고 있다. 면은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마을 자율권과 마을 규약을 무시하고 관이 나서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의도적으로 지금의 현 이장을 선출하기위한 개입을 했다는 것”이 전 이장과 일부 주민들의 생각이다.

본지 자문을 받고 있는 법조인은 “이장 선출에 관이 개입해 임명하

면 마을 자율권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이같은 관 주도적 이장 선출로 임명하게 된다면 말썽이 있는 마을마다 관이 마음대로 이장을 뽑을 수 있게돼 직권남용 의혹을 받게된다”며 “이장 선출에 관이 개입을 해서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치일1리는 이번 이장 선거 논란과 관련해 2019년 정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개발 사업인 ‘은혜로운 휴양마을’ 운영이 계속 운영 중지돼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또 다른 지침 위반 논란

이 일 전망이다. 더군다나 현 이장까지 앞서 마을 사업인 ‘행복마을’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전기공사 대금으로 Y전기에 1850만원을 지불했다가 1000만원을 잔조금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부정사용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는 “운영이 중단된 은혜로운 휴양마을은 이달 안으로 논의해 곧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불법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통면은 지난 이장선거와 관련해 임명을 반려한 A측과 법정으로 비화해있다. A씨는 현재 청통면이 임명한 현 이장과 관련해 청통면의 현 이장 임명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진행 중이다. 장지수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시대 대전환’ 특강

성장한계 봉착한 대한민국 돌파구...“지방에도 ‘작은 서울’ 만들어야” 역설 서울대 캠퍼스 매각 후 지방 이전하면 교육 시스템 혁신 될 것 미래 지방시대 경북이 선도적 역할 할 터...지방시대 동참 호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겨야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실시한 특강에서 “성장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지방시대 대전환’을 통해 경북에도 작은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민선8기 슬로건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도정 슬로건으로 확정해 미래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특강에서 이 지사는 “지금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은 OECD 꼴찌가 될 것이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주장하며 그 원인을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

도권 병(病)에 걸린 것”이라고 진단했다.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지사는 해결책으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들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방의 (작은)서울화와 서울대학교 지방 이전을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지방시대를 대비한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과감한 테스트베드를 실천하면서 이번 특강과 함께 미래 지방시대의 한 가운

데 경북이 주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이다”며 “서울대가 현재의 캠퍼스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가면 최첨단 캠퍼스와 혁신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적 석학을 영입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며 지방시대 동참을 제안했다.

장지수 기자



이만희 의원, 한국마사회 감사패 받아

축산발전·경쟁력 강화 기여 영천 경마공원 조성 지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

천·청도)이 지난 13일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로부터 국내 제4경마장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영천경마공원은 2009년 유치 후 13년만인 지난 10월 30일 기공식을 가졌다.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원 145만㎡(44만평) 부지에 한국마사회가 1857억원을 투입한 제1단계 사업 기공식이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평소 경마·말산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축산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 특히 영천 경마공원 조성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이같은 ‘감사패’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마사회에서 경마공원 관계자 등과 영천경마공원 조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영천경마공원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변 교통 SOC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영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뤄내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장지수 기자

지역 최대 규모 종합안전체험행사

경북도 소방본부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도청과 천년숲에서 대구·경북 최대 규모로 ‘2022년 안전경북 아이행복 드림 페스티벌’(약칭 ‘안아드림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도내 최초 종합안전체험행사로 ‘최강 어린이 소방관 챌린지’를 통해 화재, 구조, 구급 분야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면 체험인증 휘장을 수여해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 소방인명구조견 시범 공연 행사 외에도 모든 세대를 위한 문화행사로 소방안전OX퀴즈, 마술



쇼, 버블쇼 등도 펼쳐진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일상의 안전에 즐거움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화재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보건안전, 여행안전, 어울림 등 60여 가지의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김효정 기자

경북도 & 경북도교육청... 또다시 무상급식 분담률 두고 갈등 재점화

기관 갈등 유발하는 '교육전출금' 제도 대대적 손 봐야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경북도 비법정전출금 6배 넘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무상급식 지원할 수 있어야



무상급식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며 경북도교육청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북지역 무상급식 예산은 총 1천200억원. 이 가운데 80%는 경북도교육청이, 20%를 경북도와 23개 각 시·군들이 분담하고 있다. 경북도가 이 20%의 내년도 무상급식비용을 분담하지 못하겠다는 것. 경북도의 이같은 불만은 경북도교육청의 배부른 예산잔치에 대한 불만이다. 경북도의 경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25.6%)가 낮는데 고령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근 복지예산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예산철이 되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를 놓고 양 기관이 여전히 평행선이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기편성된 예산도 다 못 쓰고 기금 적립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 전출금은 최근 5년간 매년 늘어 지난해 122억5400만원으로 법정 전출금 4222억6400만원을 더하면 경북도가 경북교육청에 부담하는 전체

경북도는 25일 "기관 갈등 유발하는 교육전출금 제도 대대적으로 손봐야"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9월
계	356,404,398	415,725,395	457,951,785	470,113,335	544,418,843	347,760,332
법정 전출금	337,537,440	385,606,319	344,918,977	353,727,609	422,264,389	225,300,175
비법정 전출금	18,866,958	30,119,076	113,032,808	116,385,726	122,154,454	122,460,157

전출금 합계는 모두 5444억1800만원에 이른다.

[경상북도도교육청 지원예산 현황](단위: 천원)
* 법정 전출금(지방교육세 전출금,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 비법정 전출금(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자영수산물 급식지원, 농업계고 영농정책 지원, 유치원 공교육 지원)

경북도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은 지난 20년간 학령인구가 30%이상 감소했는데 학생수에 관계없이 법정 전출금은 정부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돼 자동으로 지속 늘어나 초중고등학교의 사업성 자본지출을 늘리는 상황이고, 교육현장에서는 넘치는 교육예산 때문에 일선학교의 교직원들이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동원될 지경이라는 것이다.

즉 법정전출금은 남아돌아 공립 학교 설치·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하면서 다시 시도

지사에게 비법정전출금의 형태로 무상급식 등 사업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시도는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불만이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은 경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전국 최하위권인데 이마저도 못 내놓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북도의 비법정 전출금 거부 움직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이철우 지사는 이러한 비효율적 재정지출구조가 지방대 위기와 같은 고등교육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이제 교육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한다는 주장까지 더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OECD가 공개한 'OECD교육지표 2022'분석 결과를 보면 특히, 한국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OECD평

균보다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OECD평균을 한참 하회한다.

2019년 기준으로 초등교육에는 1만3341달러를 지출해 OECD평균인 9923달러에 비해 34%나 높고, 중등교육은 1만7078달러로 OECD평균인 1만1400달러보다 50%가까이 높다. 반면, 고등교육은 1만1287달러로 OECD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을 혁신해 기업을 불러모으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용도를 무상급식으로까지 확대하여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도청과 교육청은 함께 경북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 샤인머스켓 빨간불... 가격 곤두박질, 판로 위기

소비자가(2kg) 3만원 → 1만원대로 절반 이하 뚝
"기존 포도만도 못하다" 소비자 혹평에 외면 받아
과잉 공급에 선부른 조기 출하도 가격하락 한 원인
중국 샤인머스켓 본격 생산... 한국 수출길도 비상

'황제' 과일로 불리던 영천 샤인머스켓의 수출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과잉 생산·공급으로 가격 폭락까지 겹치면서 샤인머스켓 농가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재배농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잉 공급에다 미성숙 저당도 품질 샤인머스켓을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해 조기에 수확, 출하하면서 최근 소비자들이 "맹물 맛이다. 기존 포도만도 못하다"며 황제 과일의 명성을 저평가하고 있는 것도 가격 폭락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샤인머스켓은 육질이 단단해 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과 특유의 향이 없다. 당도 역시 일반 거봉(약 14브릭스)보다 훨씬 높아 씨앗 없이 먹을 수 있는 장점으로 그동안 과일 황제 명성을 받아왔다. 2018년을 기준으로 영천과 김천, 상주 등에서 시작해 고소득 작목으로 전국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받아온 것.

25일 영천시와 지역 농협 등에 따르면 "(2kg기준)지난 해 3만원대 샤인머스켓 소비자 가격이 올해 들어 절반 수준인 1만6000원대 이하로 떨어졌다.(도매가=1만8000원

에서 1만원) 또 최근 맛에 대한 혹평까지 쏟아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면서 "자칫 수출길까지 막힐 염려가 된다"는 걱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샤인머스켓이 일반 포도 가격의 10여배에 팔렸으나 최근 생산 과잉 소비 부진 등이 겹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판단하고 있다.

지역 농가 및 농협 관계자들은 "올해 추석도 20일가량 빨라졌는데 미성숙된 샤인머스켓을 추석 전 조기출하하는 바람이 불면서 통상 17~18브릭스의 당도가 13~14브릭스 정도로 떨어졌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맹탕 포도라며 맛을 혹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올해 우리 지역은 비는 적게 왔지만 흐린 날씨가 많아 샤인머스켓의 성숙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과정에서 농가까지 추석을 앞 두고 선부른 조기출하하면서 껍질이 두껍고 당도가 떨어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맛의 혹평이 나온 것이다"며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

과잉 생산과 과잉 공급도 가격



조기 출하로 텅 빈 영천시 화룡동 샤인머스켓 밭에서 정대원 전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 과잉 생산에 따른 향후 가격 하락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영천 지역 과일은 포도와 복숭아, 사과 주생산 품목이다. 이 중 포도가 1924(ha)로 단연 1위로 전체 면적의 40%가량을 차지한다. <복숭아(1662ha),사과(715ha)> 1550여 농가에서 연간 9236톤(t)을 생산해 왔다.

영천시 화룡동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는 k씨(67)는 "고소득 작목에 너도나도 뛰어들어 2019년부터 기존 포도농가의 샤인머스켓 묘목 대체가 50%를 넘는다. 올해는 더 많아 전체 포도면적의 70~80%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잉 생산이 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가격 하락은 볼 보듯 뻔하다는 것.

때문에 수출 길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중국의 샤인머스켓 생산으

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오는 1일부터 5일까지 3박 5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2022년 한-베트남 비즈니스 수출상담 길에 오른 성영근 조합장 역시 우려 섞인 목소리다.

성 조합장은 "샤인머스켓은 묘목 식재 후 2년이면 수확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이 본격적으로 샤인머스켓을 생산하면서 동남아에 급격히 진출해 가격 면에서 우리 수출길도 좁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포도의 저장 기술은 그렇게 고급 기술이 아니어서 2년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 농산물 수출도 다시 중국과 한판 승부를 겨뤄야할 입장이다"면서 "내년 이후 샤인머스켓 수출길 역시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메타버스 속으로~ 경북 23개 '마을이야기'

경북도와 영천시는 '2022 경상북도 마을 이야기 박람회'를 최근 팀스토리 메타버스 플랫폼 유스토리(U-Story)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야기가 있는 경북 마을 속으로'라는 주제로 경북도와 영천시 주최,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영천강변공원 주차장에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영천문화예술 축제에 일부로 진행이 됐다.

플랫폼 유스토리에서 도내 23개 시군의 마을에 대해 고유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을 소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마을이야기박람회는 전통과 역사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지와 특산물을 융합한 브랜드 개발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마을이 가진 문화유산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스토리는 WebXR 기반으로 설치 없이 접속이 가능하고 디바이스 제한 없이 모바일, PC, 노트북, 태블릿으로 접속할 수 있다. [바로가기] <https://youstory.io/gbstory2#landing> 김효정 기자

지역 분만산부인과 J병원 개원 2주년 맞아 200번째 아기 탄생

영천시, 월평균 출생아 수 45.6명 J병원 출산 8명 분만율 17%

영천시(시장 최기문) 인구증가 첫 공약사업인 (J병원)분만산부인과가 개원 2주년을 맞으면서 200번째 아기가 탄생했다.

영천시는 지난 21일 망정동의 송씨 부부의 첫째 아기(남, 2.85kg)가 우렁차게 태어났으며 24일 기념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J병원 최진호 원장은 “관내 분만율은 2021년 20.8%, 2022년 9월말 기준 17.1%, 분만 산모의 국적은 내국인 77.3% 다문화가정 16%, 외국인 6.7%로 앞으로 관내 분만율

50%까지 높여 나가겠다” 밝혔다.

J병원은 정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일환으로 2020년 9월 23일 개원해 이달로 만 25개월을 맞는다. 초기 건설 기자재 등 28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매년 운영비로 5억원씩 20년간 지원된다.

이번 200번째 아기 탄생을 기준으로 월 평균 8명의 아기가 J병원에서 태어난 셈이다. 2020년9월부터 2022년9월까지 25개월 동안 영천시 출생아 수는 모두 1140명으로 한 달 평균 45.6명이 태어나 J병

원 분만율은 약 17%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영천시 인구는 올해 1월 10만1634명에서 갈수록 줄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2018년 11월 수준인 10만1131명을 기록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분만 산부인과 개원 2주년이 되어 200번째 아기의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건강한 아기 탄생을 위해 임신부에게 필요한 24시간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만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영천한의마을서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04차 월례회



「정부의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 지방이양 촉구」건의

정부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 지방이양 촉구 결의 독도 관광시대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에 대한민국 땅 독도 홍보 필요성 강조

정부의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이 경북 23개 시·군 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지난 14일 제304차 월례회를 영천한의마을에서 개최하고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대상자」 심의·선정의 건, 「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 지원 현실화 촉구, 「정부의 독도 영유권 사업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 등 3건의 의결했다.

정부 독도 관련 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총 13개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독도가 갖는 역사적·정

치적 의미와 풍부한 자연환경의 우리 영토와 영해를 보존하기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 독도방파제 건립사업 1건만 하더라도 전액 국비인 4074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즐비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월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및 독도방파제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이 사업들을 적극 건의했지만 현재는 독도입도지원센터 및 이들 사업들이 대부분 보류되거나 무산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경북시·군의장들이 월례회에서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의회 부의장으로 이번 월례회를 주관한 하기태 영천시의회의장은 이날 본지와와의 질문에 “경북도가 우리 고유 영토 독도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고, 독도 관광시대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겨 세계에 대한민국 땅 독도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경북도 전체 의장 전원이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장은 이번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의가 영천 가을 축제 개막일에 개최된 만큼 화병사에서 “14일부터 개최되는 영천한약·과일축제, 영천문화예술제, 왕평가요제도 둘러보고 영천에서 멋진 하루 보내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도, 독도수호의지 재 천명

독도척령의 날 122주년 기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독도수호의지를 강력하게 재 다짐했다.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본부장 김남일)는 24일 독도의 달을 맞아 본부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도 특강을 실시하고, “독도를 문화예술의 섬,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번 특강은 독도의 군사적 가치와 국토·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특강으로 우리 영토 수호의지를 재 천명한 것이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

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이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독도 7시 26분의 미래!’라는 주제로 독도에 대한 과학적, 문화적, 생태적 접근법과 독도에 관련된 기록 보존에 더 의미를 뒀다.

한편, 이번 특강과 관련해 경북도는 도청 1층 전시관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독도척령의 날 122주년을 기념하는 독도 관련 자료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 국민이 독도홍보대사가 돼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고, 독도지킴이로서 독도사랑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한우 객원기자



청도군 각북면 힐티재 정상 꽃밭 조성

군 경계 관광객 휴식공간 정비 겨울꽃 꽃양배추 2000본 꽃잔디 1200본 식재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대구시와의 경계인 힐티재 정상에 가을과 겨울꽃 화단을 조성해 관광객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정비했다.

군은 이 달 초부터 힐티재 정상 경계 조형석물 인근 화단(60평)에 꽃양배추 2000본과 꽃잔디 1200본 등 겨울꽃 3200본을 식재하여 청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위해 정비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도군은 향후 남산1리 소재 남산교에도 꽃벽설치와 면소재지 750평의 유휴지 공터에 유채꽃밭을 조성해 아름다운 각북면 가꾸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군(면) 관계자는 “이번 꽃밭조성으로 청도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힐링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효정 기자

도내 주니어ROTC 136명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병영체험

경북도내 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고교생 주니어 ROTC 학생 136명이 24일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병영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면서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날 고교생 주니어 ROTC 학생 병영체험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

경북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니어 ROTC 동아리 고등학교 12개교 중, 이날 체험은 10개교 139명(남학생 107명, 여학생 32명)만 참여했다.

체험 훈련은 군사학교 교육여단의 주관 아래 입·퇴소식을 비롯해 국군 도수체조 실습, 화기운용 체험, 화생방 훈련, 전투부상자 처치법, 제식 훈련 등이다.

한편, 이날 체험프로그램에 영천 지역 주니어-ROTC는 영천여고에서 10명의 학생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날 체험은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안보의식 체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포은초 취타대, '제13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초청

포은초등학교(교장 심선자) 취타대(미리내 소리사랑)는 지난 8일 대전 뿌리공원에서 개최된 <제13회 효문화 뿌리 축제>에 초청됐다.

이번 축제는 전국 문중이 모여 성씨를 알리는 '문중 퍼레이드'로 포문을 열었는데 포은초등학교 취타대의 행진이 퍼

레이드의 첫 부분을 장식했다. 포은초 취타대는 2018년에 창단해 '미리내 소리사랑'이라는 팀명으로 4-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도내 유일한 어린이 취타대이다.

김효정 기자



단포초등 나만의 케이크...Y-STAR 사업단 찾아가는 클래스

단포초등학교(교장 서영진)는 지난 20일 청년희망 Y-STAR 사업단의 '찾아가는 원데이 클래스 케이크 아트'를 체험했다.

이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티커를 이용한 케이크자꾸미기, 마카롱, 젤리등을 이용한 케이크꾸미기를 통해 나만의 케이크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영천중, 전학년 흡연예방 홀로그램 공연

영천중학교(교장 김마라)는 남자 중학교로 학생 간 흡연 전파 우려가 높다고 학교가 지적했다.

때문에 학교는 지난 19일 400여명 전학년을 대상으로 사전 학생 흡연예방 홀로그램 공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학년별 2022학년도 흡연예방 및 금연 실천 심화형 학교 운영 일환이다.



영천시 보건소, 5개소 어린이집 아토피교육 인형극

영천시보건소(소장 박선희)는 지난 5일, 12일 아토피 피부염 예방을 위해 '아토피 태권소년 윤이'라는 제목의 막대 인형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형극은 관내 안심학교 어린이집 5개소(5일은 금호 어린이집, 코아루 어린이집, 12일은 꿈을 빛는 어린이집, 서라벌예술어린이집, 초롱어린이집) 원아 181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인형극이었다.

앞서 상반기에는 15개소 어린이집이 극단을 통해 인형극을 동시에 관람함으로써 하반기 대상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인형극은 아토피 피부염 목욕법, 보습제 바르기 등 구체적인 예방법 실천을 위해 신나는 음악과 율동, 구호 외치기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정한별, 박유진, 류봉휘 학생

금호초 유도부 '제59회 경북학생체육대회' 금 2, 은 1 획득

금호초등학교(교장 권동환)는 본교 유도부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제59회 경북 학생체육대회' 초등부 부문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10월 22일 열린 초등부 남자-53kg급 정한별(5학년), 여자-57kg급 박유진(5학년)이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10월 23일 열린 경기에서는 남자 +65kg급에서 5학년 류봉휘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금호초등학교 유도부는 2013년 7월 창단한 이후 매년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일구어냈다.



영천초, 또래관계와 의사소통 10회기 프로그램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18일부터 전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에 걸쳐 또래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교생활 지원과 의사소통 기술 습득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천 한마당 가을운동회... 1년간 교육과정 운동회로 구현

평천초등학교(교장 정인진)는 지난 21일 운동장에서 평천 한마당 가을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동회는 학부모 및 지역민의 참여 없이 전학년 학생들과 교직원만의 가을운동회로 실시됐다.

또, 전교생을 청, 백 두 팀으로 나눠 달리기, 공굴리기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 22가지 종목의 경기를 진행해 우승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운동회라는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냈다.



영동중, 1박2일 사제동행 느티나무 캠프 운영

영동중학교(교장 김영순)는 지난 14일부터 1박 2일간 보현산자연휴양림에서 사제동행 느티나무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전학년중 학생 32명, 교사 11명으로 총 42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조별로 구성돼 대화시간, 조별 및 팀별 게임과 장기자랑으로 진행됐다.



임고초등 졸업생 이종문 교수 재능기부, 임고가족 문화탐방

임고초등학교(교장 강석중)는 지난 15일 '가족과 함께하는 내 고장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전했다.

본 행사는 2013년부터 이어지는 본교 졸업 선배 이종문 교수의 재능기부 특색교육 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총 22명이 참여했다. 이번 탐방에서는 임고서원 방문하고 경주 옥산서원에서 다도와 서예체험을 하며 마지막으로 흥덕왕릉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파트입주민 하모니...금호윤성모닝타운 음악 페스티벌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일석)은 22일 금호윤성 모닝타운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금호윤성 행복드림 페스티벌'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신영,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한국음악협회 영천시지부의 후원으로 복지공동체 문화조성과 주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서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수리 봉사 활동

영천시 서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2일 주거취약 대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영천 아름다운봉사회(회장 윤태묵), 경북안전기동대(지부장 문창기), 영천여중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봉사활동을 도왔다. 이번 봉사 활동은 서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윤태묵 회장의 대상자 의뢰로 시작된 것이다.



영천시,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8525톤 매입

영천시는 25일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11만 9245포/40kg(산물벼 1만3219포, 건조벼 10만6026포)와 시장격리곡 9만 3880포/40kg, 총 21만 3125포/40kg(8525톤)을 12월 초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586톤 대비 186% 증가한 물량이다.



영천시 중앙동, 도시재생 벤치마킹 경주 황도동

영천시 중앙동(동장 김성현)은 25일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위해 경주 황도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중앙동은 지역 내 주민이 문제점을 발굴하고 디자인적 관점에서 해결할 능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며 이번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대창2리 경로당 개소식... 85㎡ 규모 3억 8천만원 지원

영천시 대창2리가 24일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2여 년 만에 사업비 지원금 3억8천만원으로 방 2개, 주방 2개, 화장실 2개(남·녀)로 연면적 85㎡ 규모로 지어졌다.

이날 개소식은 최기문 영천시장외에 도의원, 시의원, 성낙균 영천시노인회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미스터트롯 가수 김중연 유튜브 '별별영천' 버스킹 공연

미스터트롯 김중연 가수는 지난 21일 영천 '별별영천' 유튜브 채널에서 '싱포유 in 영천' 버스킹 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은 영천공설시장, 영천강변공원,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3곳에서 MC학준(영천! 노래자랑)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영상은 3편으로 나눠 11월 중에 공식 방송될 예정이다.



영천문화지킴이, 창립 10주년 기념 영천향교 정비

영천문화지킴이(회장 김종식)는 23일 영천향교를 정비하고 영천국학학원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영천문화지킴이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영천향교 유래루에 해충이나 부식 방지를 위해 나무 마룻바닥 공담 활동을 진행했다.



청통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22가구 이불 전달

영천시 청통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광환, 서만흡)는 25일 22가구의 저소득계층에게 이불을 전달했다.

회의를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협의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모금한 '함께모아 행복고구'를 이용해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지원 사업'을 계획한 것이다.



영천시 동부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길거리 캠페인

영천시 동부동 맞춤형복지팀은 아사주공아파트와 창신아파트 대로변에서 지난 20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제로'라는 슬로건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맞춤형복지팀과 협의체 위원들은 현장에서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부스를 열어 복지 서비스 관련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진행했다.



영천시 보건소,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역량강화 간담회

영천시 보건소(소장 박선희)는 2022년 제2차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역량강화 교육은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박성준 교수의 '건강관리를 위한 감염병 예방과 대처 방법' 강의와 대구경북대병원 암센터 이은영 간호사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주제로 한 강의를 이어졌다.



자양면·임고면 합동 이장회의,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

영천시 자양면(면장 이종흥)과 임고면(면장 정동훈) 50여 명이 지난 25일 임고면민 복지회관에서 합동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 이장회의에서는 영천시의 인구감소에 대응과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에 관한 내용이 주된 것이다.



한국출산장려진흥회, 여성보건용품 기탁

한국출산장려진흥회(회장 설은주)는 여성보건용품 150만원 상당을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전달해 달라며 26일 영천시에 기탁했다.

한국출산장려진흥회 설은주 회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와 여성보건용품 후원을 통해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천시, 미래차 중심 개편 착수...지역 신영·한중엔시에스·화신 동참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기술혁신 주도 인재 양성 미래차 등장으로 엔진·동력전달 자동차부품 갈수록 감소 미래차 중심 산업구조 재편 협약기업에 각종 지원책 제시

그동안 정부와 상부기관 등 공모 사업과 지원제도 등에 치중했던 영천시가 최근 지역 산업구조를 미래차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는 25일 "자동차산업 대전환 수퍼클러스터" 경북형 일자리 지역 참여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미래차가 등장으로 영천에는 경산과 경주 등과 함께 갈수록 감소할 전망이다. 엔진·동력전달 부품 등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산업형태가 집중되어 있다.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지역 내 청년 고용을 촉진할 기반을 빼앗기고 잇따라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도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지역 산업계 일반적 인식이다.

영천상공인 한 관계자는 "크고작은 중소기업들이 영천에 방사형으로 산재해 있지만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산업 일변도로 자체 기술 개발보다 대기업 하청 수준의 산업구조

가 대부분으로 노동집약형 일자리가 팽배해있다. 미래차가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는데 미래차 중심으로 친환경·자율주행·부품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면 일자리·생산기반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지난해부터 경북형 일자리 창출을 선점하기 위해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 차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특히 영천시는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 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친환경·자율주행 소재·부품 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생산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아래 경북도가 추진하는 경북 상생형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의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지원 전략(2021년 6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은 유지군 40%(565개), 감소군 29%(412개), 확대군 1.9%(28개)로 구분된다.



지난 13일 경북도청에서 자치단체, 대학, 특성화고, 기업 간 자동차 산업 대전환 수퍼클러스터, 경북형 일자리 산학관 인력양성 협력체계 구축, 지역 상생과 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경북도 주관으로 열렸다.

이 협약은 도의 미래차 대전환 상생형 지역일자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전문인력 육성,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협약은 경주, 영천, 경산 지역에 소재한 에코플라스틱, 다스, 신영, 한중엔시에스, 화신, 대

영전기, 아진산업, 건화이엔지, 이지테크 등 지역 기업 9곳과 경북도, 경주, 영천, 경산시가 주제로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산학관 인력양성 협력체계 구축 협약에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협약기관으로 참여해 지역 자동차부품계 인력 엔진이 될 전망이다.

영천 폴리텍 로봇캠퍼스는 산학연관 전문인력 양성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민관 협력으로 경북도가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협약식에 참여한 지역 신

영, 한중엔시에스, 화신 3개 기업은 근로여건, 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상생형 일자리 협약체결로 기업 입지·투자·세제 특례, 근로복지·정주 환경개선 등 정부 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 영천시도 이같은 미래차 중심 지역기업 산업구조 재(개)편을 위한 협약 기업들에게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매칭시켜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공동직장 어린이집, 제작자 맞춤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에서는 연구개발센터, 환경개선, R&D 사업화, 기금조성, 세제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망정동 한신더휴에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개설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21년 6월 문외동 LH영천 센트럴타운 단지 내 1호점이 개설된 후 만 1년 4개월여 만이다. 2호점은 올해 8월 창신아파트(창신1길 11) 영동새마을금고 2층에 조성됐다.

영천시는 18일 시청에서 한신더휴 영천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노태용)와 다함께돌봄센터 영천 3호점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으로 노태용 입주자 대



표는 단지 내 106동 주민공동시설(239㎡)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용도를 변경해 영천시에 무상으로 제공

하게된다. 단지 내에는 총 1,147세대에 420여명의 초등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영천시는 파악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만 6~12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시설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로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공개모집·선정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김하수 청도군수 “현장에서 미래 청사진 답 찾겠다”



24일 하루 8곳 현장 방문 군정 역점사업 종합 점검

김하수 청도군수가 청도의 미래 청사진을 현장에서 그 답을 찾기로 했다.

김 군수는 24일 청도자연휴양림 외 관내 주요 사업장 7개소를 차례로 방문하고 청도의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본격 현장 방문 행보에 나섰다.

내년도 군 예산 편성을 앞두고 김 군수는 이날 청도자연휴양림, 청도 역세권 환경개선사업 등 민선8기 공약사업과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을 비롯한 관내 주요 사업장을 찾아나섰다.

군정 역점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다.

각북면 청도자연휴양림을 찾은 김하수 군수는 민선8기 공약

중 하나인 '산림치유힐링센터 건립'은 청도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숲 체험, 숲길, 치유정원, 산림욕 체험,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실외 체험과 족욕·다도 체험 등 실내 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하수 군수는 이같은 현장 방문을 통해 "민선8기 청도군의 미래 청사진을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방침이다"며 "청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이날 하루 동안 김 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구.코미디철가방극장, 구.관하초등학교) △그린투어센터,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지, △유천 복합체육시설,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지, △청도 역세권 환경개선사업지 등 총 8개소 현장을 방문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교육청, 경북의 고3 수험생... 전국의 수능 수험생 응원

대학수학능력시험 D-30 맞아 경북 시군 각 1명씩 30여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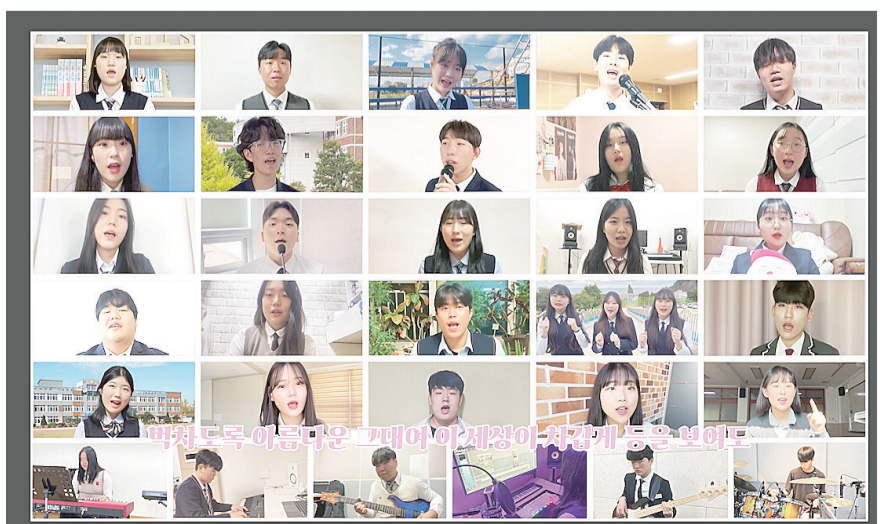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D-30을 맞아 고등학교 3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수능 응원 노래를 유튜브 채널인 '맛꿀 멋꿀'에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응원 노래는 영화 '국가대표'의 OST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레이'다. 이 곡은 수험생들이 날개를 펴고 멋지게 하늘에 맞서기를 응원하기 위해서다.

경북 23개 시·군에서 각 1명 이상씩 30여 명의 고3 수험생들이 각자 집이나 학교에서 악기 연주와 노래로 제작에 참여했다. 영천에서는 영천고 이형준 학생이 베이스 기타 연주, 영동고 김시형 학생이 노래로 참여했다.

김호정 기자





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활동

마약 사범 발생을 높고 검거율 낮은 경북지방경찰청

20대 마약사범 검거수 최근 5년간 급증
지역사회 기반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
이만희 의원, 지자체, 교육기관, 언론 등이 대책마련해야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8575명)이 지난해 같은 기간(7562명)에 비해 13.4% 증가한 가운데 경북지방경찰청 각 경찰관서별 마약사범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이번 국정과정에서 경북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경북 24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농어촌지역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가 가장 많은 16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였고, 안동서(147건)와 포항북부서(127건)가 뒤를 이었으며, 농어촌지역인 울릉서(3건), 청송서(9건), 영양서(10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한편 영천경찰서는 2018년 26명에서 2019년(20명), 2020년(20명), 2021년(16명), 2022년(16명)으로 갈수록 검거 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20대 마약사범 검거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7.7%(31명)에 불과했던 2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0.6%(82명)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벌써 작년의 검거인원을 상회하는 85명으로 전체 연령대별 비율은 25.7%에 이른다.

이는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서 10대와 20대 등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같은 마약사범 발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율은 지난 2019년 86.1%에서 2020년(84.7%), 지난해에는 82.5%로 매년 2%p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이같은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수사인력 부족으로 파악했다. 국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0년 간 약 65%, 압수된 마약은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그 수범이 고도화 세밀화되는데 비해 이를 단속하는 수사 인력은 오히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노출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계층이 마약류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지역사회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교육기관, 언론 등도 함께 힘을 모아 대책 마련을 수립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답웹)마약사범, 1년 새 10배 폭증 10대도 5년 새 2배 증가

전국 지방청 중 서울경찰청 1만2960명 검거(22.5%) 최다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중에는 강남서가 738명 검거 1위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아
이만희 의원, 전문인력, 첨단장비 보강 선제적 대책 마련

전국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전국 지방경찰청 중 최다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대 마약사범도 최근 5년 새 2배이상 증가했고, 답웹(암호화된 네트워크) 마약사범은 1년 새 10배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돼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보강 및 예산 확충으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부 국민회의 간사 이만희



(영천-청도)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만2960명(전체의 22.5%)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고, 강남서가 가장 많은 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서초서(374건)와 영등포서(368건)가 뒤를 이었으며, 주거지역인 방배서(59건), 은평서(74건), 성북서(76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그러나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20대가 1327건에서 3507건으로 164% 증가한 반면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1.3%에 불과했던 1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5%로 늘어났으며, 20대 역시 동일기간 29%에서 42.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답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답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만희 의원은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관 전국 조폭(활동) 최다 10대 이하(검거) 최근 5년 사이 6배 증가

전국 207개 조직원 5465명 중 30개과 807명이 경기관
10대 조직 검거 187명 중 62명 경기관, 3명 중 1명 꼴
고급외제차(재력)과시 '허세샷' MZ 세대 갈수록 늘어
30대 이하 조폭(검거) 1,844명 중 경기관 37.4%(691명)

경기도권에 조직폭력배(이하 조폭)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MZ세대' 3명중 1명이 경기관에서 검거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만희(영천-청도)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30대 이하 조직원 중 경기관 소재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대 조직원 역시 경기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검거된 폭력조직원 2789명 중 30대 이하가 1844명으로 전체 대비 66.1%에 달했으며, ▲경기남부 534명, 경기북부 157명 ▲서울 331명 ▲경남 222명 ▲전북 220명 ▲대구 185명 등 순으로 경기권에만 전체 25%(691명)에 해당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10대 이하 조직원 검거도 경기권이 가장 많았다. 10대 조직원 올해 검거 총 187명 중 62명이 경기권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10대 검거인원 3명 중 1명 꼴이다.

또 '18년 11명에 불과했던 수가 '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올해 62명에 이르는 등 지난 5년 간 경기지역 10대 이하 조직원 검거 수는 무려 6배 가까이 경증 증가했다.

이만희 의원은 "전·현직 조폭이 비싼 술을 마시고 외제차, 고급시계 등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 이른바 '허세샷'을 SNS 계정에 게시하거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동경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 의원은 "비대면 방식의 조직원 유입, 'MZ세대 조폭'의 증가 등 폭력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확산을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남·북부 경찰청은 10대 조직원의 증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교육을 통한 사회화 등 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폭력조직과 구성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207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5465명 중 30개과, 807명이 경기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폭 한 달에 1071건, 하루 36건 꼴...코로나 회복 틈타 증가 추세

성폭력 한 달에 210건, 매일 7건 꼴.
광주시 76% 폭증, 전국 평균 보다 높아
이만희 의원, "성폭력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중요
피해자 피해회복 대책" 강조

전국 학교 폭력이 코로나19 회복을 틈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 내 성폭력도 하루 7건씩 매일 발생(검거)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7년부터 2021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총 6만 4250명으로 범죄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3만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만2625명, 금품갈취 6032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폭의 경우 한 달에 1071건, 하루 36건 꼴이고, 성폭력도 한 달에 210건, 매일 7건 꼴로 이마저도 최근 코로나19 회복을 틈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 대비 0.6%p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학교 성폭력 가해학생은 2879명으로 '17년 1695명 대비 70%(1,184명) 급증했다.

이만희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중 성폭력은 지난 '17년 67명에서 지난해 118명으로 76% 증가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학교 성폭력범죄 증가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이다.

이 의원은 "10대 청소년 성폭력은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피해 학생들이 심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인이 된 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송경창 신임 경북경제진흥원장 취임
기업 혁신 이끌 경제정책전문가



송경창(55·사진) 전 환동해지역본부장이 경북경제진흥원 신임 원장에 또 감사에는 천해광 전 대구은행 부행장이 각각 임명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갈 경제정책전문가, 현장 소통중심의 리더로 송경창 전 환동해지역본부장을 신임 경북경제진흥원원장에 그리고 신임 감사에는 천해광 전 대구은행 부행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경창 신임 원장은 경북대학교 사대부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지역경제학(석사)을 전공했다.

여산 송씨로 경북 경산시 남산면 출신인 송 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으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특별위원회 민생경제특보로 임명돼 대선을 이끌었다.

그는 1992년 행정고등고시(36회) 합격 후 1993년 총무처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입문해 경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창조경제 산업실장, 경산시부시장, 포항시부시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마지막 임지(2021.9.30 퇴임)로 28년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해 왔다.

송 신임 원장은 “경북의 인재·기업·산업 혁신경제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진흥원 신임 감사에는 천해광 전 대구은행 부행장과 DGB데이터시스템즈 대표이사, 경일대학교 조교수(전)를 임명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최일광·김광숙씨, 자랑스런 경북도민상 수상

영천시 파크골프협회장 최일광(72)씨 지역 체육계 발전에 힘써온 공로 인정 영천시 여성자원봉사단 김광숙 부회장 20여년간 소외이웃과 함께 한 봉사자



영천시 파크골프협회장인 최일광(72)씨와 영천시 여성자원봉사단 김광숙 부회장이 나란히 올해 자랑스런 경북도민상을 수상했다.

최일광 협회장은 그동안 지역 체육계 발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고, 김광숙 부회장은 지역 교육센터에서 20여년간 반찬과 도시락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해 온 순수 봉사자다.

경북도는 21일 영주 선비세상에서 열린 2022년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북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총 41명의 도민에게 이같은 올해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37년간 해녀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포항 구룡포리 성정희 어촌계장을 포함한 5명의 특별상 수상자와 취약계층 돌봄 및 반찬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영천 여성자원봉사단 김광숙 부회장 등 36명이 본상을 수상하는 등 총 41명이 받았다.

조성범(60) 한빛이동병원장, 임대식(63) 경북포럼 안동지역위원장, 윤점환(70) 산

성면 화전2리 이장 3명이 코로나극복을 위한 공로로 특별상 수상자 명단에 올랐고, 포항과 경주, 영천 등 경북도내 23개시·군에서 골고루 2~3명의 수상자가 나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 단위 기관·단체장,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도의원, 출향시도민회 회장단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 희망 지방시대를 열어주길 바라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도민의 날’은 신라가 당나라 군사 20만명을 격퇴하며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서기 675년 음력 9월 29일(양력 10월 23일)에서 유래하면서 이날을 도민이 중심으로 결속하자는 의미에서 1996년 경상북도 개도 100주년을 맞아해 도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시상식에서 “도민과 함께 또 다른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슬로건처럼 대한민국의 희망은 지방에 있다”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재건하는데 도민여러분이 중심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 메타버스, 국내 넘어 해외로
美 뉴포트비치시장과 영화제 MOU



경북 메타버스사업이 해외로 뻗어가고 있다. 경북도가 국내 최초로 시도한 메타버스 순풍이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넘어 세계속 메타버스 허브 도시로 발길을 확산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미국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시와 세계 최초 메타버스 연계 국제 지자체간 협업모델인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메타버스와 현실을 융합한 국제 영화제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케빈 멀둔(Kevin Muldoon) 美 뉴포트비치시장, 김정중 영화감독, 알리 자한기리(Ali Jahangiri) 뉴포트비치시 경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와 뉴포트비치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 ▷양 지자체 간 문화·경제 교류 확대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상호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지수 기자

정낙은 화산농협조합장 'NH농협생명 BEST CEO' 수상

경북 영천시 화산농협 정낙은 조합장이 경북 농축협 명예의 상인 '경북 농축협 BEST CEO상'을 수상했다.

NH농협생명 경북총국은 18일 생명보험 추진을 통한 비이자수의 증진 등 우수한 경영실적으로 정낙은 화산농협 조합장이 선정돼 이같은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북 농축협 BEST CEO상은 ▲생명보험 조합원 실익증대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한 농업인 농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보장 확대 ▲농가소득 증대 기여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해 헌신한 농축협 조합장에게 수여하는 경북 농축협 명예의 상이다.

화산농협은 올해 9월 경북 농축협 156개 농축협중 생명보험 실적 1위를 달성한바 있다.



정 조합장은 “이번 상은 조합원들과 임직원 노력덕분에 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을 통해 농업인들이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영천 화산농협조합, 영천시장학회에 500만원 기탁

정낙은 조합장,
"영천 인재를 나눔으로 키운다"

경북 영천시 화산농협협동조합(조합장 정낙은)이 지난 21일 (재)영천시장학회(이사장 최기문)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로써 화산농협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기탁 장학금 누계는 4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18일 NH농협생명 경북총국으로부터 농촌·농협 발전을 위해 헌신한 농축협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경북 농축협 명예의 상인 '경북 농축협 BEST CEO상'을 받은 정낙은 조합장은 "영천 인재를 나눔으로 키우고 싶다. 농협이 앞장서 지역사회와 함



게 하겠다”며 기탁 소감을 밝혔다.

화산농협은 2016년부터 전국 최초 마늘 주야종구 사업장을 운영하여 지난해 연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2년 중

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813백만원(국비 544, 도비 163, 시비 380, 자부담 726)을 확보해 운영중이다.

김효정 기자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형편이 되면서 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 양육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용하면 좋아 남편 안거치고 (남편)회사 급여 일부 받아

문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로 하면서 남편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데도 이혼 후 몇 달간만 양육비를 지급하고는 그 후에는 양육비를 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도 받아 놓았고, 남편이 직장생활 등을 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나 직장에 남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양육비)귀하에게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

법원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원천징수무자(이하 회사 등)로 하여금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이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이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본문) 정기금 양육비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그 정기금 양육비채권자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상대방 배우자)의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급여를 지급할 회사 등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때 급여의무자인 회사 등은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를 양육비채권자에게 부담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울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 영 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가족 사업체 4대보험 모든 친족이 직장가입 대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근로자 아닌 가족=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 (사용자)사업주와 배우자=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돼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일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4대 보험에서의 친족은 민법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을 말한다. 친족인지 또는 동거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으로 판단한다.

4대 보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용자(개인사업장의 대표,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모든 친족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 근로자의 판단은 통상의 근로자 판단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경우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업주와의 동거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거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나, 질의서상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음은 물론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설]

영천시 여단협...바른언론 지적에 항의는 적반하장

<賊反荷杖>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단협)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산하에 59개 단체 5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후보시절 "언젠가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정치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 정치권력은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여성 대표단체인 여단협도 예외는 아니다.

자원봉사를 명분으로 단체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사실상 권력의 비호아래 불법 영업을 했다. 거기다가 특정 권력에 밀착해 노골적인 '갑질' 의혹도 일삼는다. 마치 권력이 자신들을 비호하듯 의도적인 흥위병 역할도 마다 않았다. 권력 카르텔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영천 여단협 이야기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영천 여단협은 올해 7월 한 식품회사로부터 6000원에 붉은대게간장 3000여개를 구매해 개당 1만원에 판매해 약 12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얻어 식품위생법, 수익사업개시신청 누락으로 부가세 등 세금 탈루 의혹을 지적받았다.

이같은 물품(식품) 판매가 처음이 아니라 십수년간 지속돼 왔고, 더군다나 세금탈루 의혹까지 받고도 "다른 여성단체들도 이같은 판매를 했는데 왜 우리 여단협만 흔드냐"는 것으로 항변한다면 건전한 사회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영천 여단협은 "경북 23개 시·군 대부분이 통상 관례처럼 이같은 식품 영업을 해오고 있고, 공공연한 전국적인 현실이다"며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

한해 2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영천여단협이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협회 운영비로 사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23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언론이 여단협만 집중해 흔들었다는 내용이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역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로 잘못을 지적받으면 시정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 '우리가 누구데 감히' 라는 뉘앙스로 되려 언론사(기사)에 항의방문을 해야 한다니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영천여단협 회장이 자치단체장 흥위병 역할을 해 온 것은 자타가 다 알고도 남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전화로 현 자치단체장장 지지를 선전한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다.

현 자치단체장 선거홍보 카드뉴스를 자신의 명의로 그룹 밴드 등에 퍼 나르는 등 노골적인 선거운동으로 사실상 선거캠프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지난 6일 양성평등 기념식에서도 모든 내빈이 다 자리해 있는데도 자치단체장 부인이 늦게 도착하자 개회식이 8분 가량이 늦춰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지난 6.1 지방선거 때에 아예 자치단체장 부인(명예회장)을 배석시켜 놓고 회의를 한 사실도 있다는 한 임원의 제보는 여단협의 자가발전과 임종성인지 아니면 의도적 권력 하수인 역할인지 의심스럽다.

식품 불법판매로 세금포탈 의혹을 받는 것보다 이같은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은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받아왔지만 지역 언론과 정치권 및 여성단체 대표들은 목소리 높은 여단협과 자치단체장 눈치만 보면서 그동안 쉬쉬해온것이 이들을 권력 카르텔화로 내 몬 것이 아닌지...

여단협이 이렇게 권력 앞에서 마치 권력이 감싸듯 '갑질' 형태를 보이는 것은 여성들에게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 사회 현실도 책임이 없지않다. 여성상위시대가 당연시 되니 이같은 여성단체들의 일탈에도 이제 사회가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

과거 가부장적 남성들이 힘과 권력으로 여성들을 억압하며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같은 피해의식이 오늘날 그저 페미대(對) 안티페미의 문제로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남성에 몰아치고 남성을 가해자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져 있는 여성 보호의 현실이 여성들의 이같은 권력화 카르텔을 부추긴게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올해 9월 경기도 한 여성단체협의회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해 되파는 등 직거래를 속여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다 상부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경북지역 한 여단협은 '사랑의바자회'를 앞세워 황태, 다시마 등 1000여박스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수익금을 일부 장학금과 소외이웃에게 지원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같은 시기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황태와 다시마 2000박스 분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명분으로 이렇게 가공상품을 대량 구매해 노골적인 수익사업을 하는 여단협이 과연 주변 슈퍼나 작은 영세 골목상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하더라도 과정과 절차가 모순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초등

[2022] 제13대 총동창회 회장단 및 사무국 명단

회장단(會長團)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고 민	4대	최일광(50)	011-532-5157	자 문 위 원	이춘만(52)	010-6526-5990
	5대	이덕모(53)	011-9902-3351		고진규(52)	010-2666-4337
	6대	성영근(54)	010-3537-4587		김경해(52)	010-6522-8019
	7대	김성호(55)	010-3166-2820		조경숙(52)	010-4929-9800
	8대	이종대(56)	010-8599-6073		박동철(53)	010-5684-5344
	9대	서동진(57)	010-9503-4334		양도암(53)	010-2950-5851
	10대	박종운(58)	010-5529-5535		김서규(54)	010-3808-4455
	11대	김종팔(59)	010-2501-6410		우애자(54)	010-5586-9441
	직전 회장	정연소(62)	010-3809-1769		이홍우(54)	010-3810-3644
	총동창회장	정용준(63)	010-6545-5050		김태철(55)	010-3526-8852
	부 회 장	김홍균(63)	010-3128-2448		하준식(55)	010-3530-2624
이만희(64)		010-5256-7648	전 혁(56)	010-8560-4200		
서기수(65)		010-8587-4869	장건환(56)	010-3820-4676		
박종복(67)		010-6564-4190	유석권(57)	010-3500-7755		
정순화(68)		010-7449-9319	류치득(57)	010-5588-3693		
최재구(69)		010-3803-5559	직책	성명	연락처	
이해성(70)		010-2874-1872	사무국장	전영국(70)	010-4530-7620	
김승호(71)		010-6438-5508	사무차장	조완용(71)	010-3037-5252	
류종해(72)		010-9150-9426	재무부	부장	허성준(74)	010-4936-2700
이상영(73)		010-5411-4628		차장	이지현(77)	010-4459-0019
감사		서기수(65)	010-8587-4869	체육부	부장	최영철(72)
	김정운(71)	010-4531-3649	1차장		신통길(78)	010-6414-8572
	기획부	홍보부	문화부	2차장	김종표(80)	010-6347-4009
				부장	성도현(75)	010-6521-6749
				차장	김상희(76)	010-3056-4089
	부장	정종식(73)	010-3824-7786			
	차장	김윤정(77)	010-3551-4467			
	부장	박금희(73)	010-8589-8300			
	차장	이수연(78)	010-3055-6072			



2022년 기수별 회장단 명단

기수	직책	성명	연락처	기수	직책	성명	연락처
63	회장	조세중	010-2639-1906	74	회장	정성운	010-4530-1045
	총무	이재문	010-6264-6245		총무	김효연	010-2534-7830
64	회장	이호준	010-3102-4935	75	회장	박대호	010-2079-9793
	총무	박말진	010-3824-1950		총무	김현정	010-2859-5685
65	회장	권 훈	010-4559-7480	76	회장	이진운	010-2505-4638
	총무	-	-		총무	이정협	010-2501-5465
67	회장	김영철	010-4535-8400	77	회장	손인섭	010-4080-6989
	총무	박규만	010-6781-4292		총무	이지현	010-4459-0019
68	회장	김민호	010-5553-5333	78	회장	심완섭	010-8620-1575
	총무	최창민	010-3541-4545		총무	이수연	010-3055-6072
69	회장	안덕수	010-2528-5800	79	회장	김통용	010-5050-7287
	총무	조환래	010-7375-3554		총무	문은실	010-3460-9852
70	회장	이정길	010-3543-7955	80	회장	최지영	010-3917-7285
	총무	박상준	010-2707-1028		총무	김정수	010-2625-1369
71	회장	김정운	010-4531-3649	81	회장	황윤태	010-9091-6513
	총무	이명식	010-5527-1337		총무	김창섭	010-4001-3027
72	회장	최영철	010-3517-3696	82	회장	조명진	010-4144-8524
	총무	권만복	010-6488-3703		총무	이원보	010-4004-4300
73	회장	이태환	010-8640-4675				
	총무	김은국	010-9209-1155				

*과관색 : 부회장 기수(10) * 회색 : 일반 기수(9)

청년일자리,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주요사업

- 취업특강 및 컨설팅
- 구인·구직 만남의 날 (Job Meeting Day)
- 취업캠프(대면, 언택트)
- 청년 구인 기업체 홍보 및 지원
- 회원사 1사 1청년 더채용하기
- 청춘공감카페 운영 등

지원체계



영천상공회의소

깊어가는 가을,
어느 멋진날

제15회 영천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출연진

2022.11.3. 목 7:00pm

정은주 재즈 콰텟 | W코랄 앙상블

소프라노 이화영 오페라 박영민 레너 강현수 김명규

바리톤 추장환 피아노 장운영

영천시민회관

(경북 영천시 시청로 17 T. 054.330.6680)

주최 | 영천시민가을음악회추진회 주관 | 계명대학교 영천동문회,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동문회

후원 | 경상북도 STAR 영천시 시민신문사